주말 쇼핑

형형색색 '샌들'

화려한 스타일로 여름 준비

유행보다 생활패턴 맞게…스포츠 샌들 저렴

샌들의 계절이 왔다. 매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강렬한 컬러나 화려한 장신구, 아찔한 높이로 무장했다.

샌들 하나만으로도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배려한 불황기의 마케팅 전략이 작용한 듯하다. 저렴한 가격의 스포츠 샌들도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더욱 높게, 화려하게=핫 핑크, 그린 등과 같은 캔디 컬러를 매치한 제품(나인웨스트 컬러슈즈 10만원대)들이 발길을 잡고 있다. 크리스털이나 큐빅(탠디 30만원대), 앤틱 느낌의 버클, 징 등 다양한 장식을 활용한 것도 볼 만하다.

굽은 높아졌다. 8㎝ 넘는 하이힐이 인기다. 10㎝가 넘는 '킬힐'(세라 20만원대)도 등장했다. 굽이 낮은 플랫슈즈(나인웨스트 7만원대)도 꾸준히 찾고 있다.

글래디에이터 샌들(무크 10만원대), 종아리까지 가죽으로 감싸는 썸머부츠(나인웨스트 30만원대)도 눈길을 끈다.

◇화려해진 스포츠 샌들=스포츠 샌들의 기능, 디자인, 색상도 다양해졌다. 일상적인 외출용이나 바캉스용으로도 무난하다.

르까프 '아이시스'(5만원대)는 뒷굽을 높여 패션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 내피를 부드럽고 물에 잘 젖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다.

휠라코리아 '크로아제'(4만원대)는 발레슈즈 타입의 여성용 아쿠아 슈즈를 선보였다. 프로스펙스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아동용 'GH 아쿠아'(7만원대)를 내놓았다.

한편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4일까지 '헤드·휠라스포츠'대전을,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8일까지 '초여름 스포츠 대전'을 진행한다.

◇샌들 선택 요령=샌들 구입 시간은 발이 가장 커지는 늦은 오후나 저녁 무렵이 좋다. 뒷부분이 터져있는 샌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발꿈치가 약간 밖으로 나오는 크기를 선택한다.

다리가 짧을 경우 발등이 많이 드러나는 디자인과 피부색과 비슷한 색상을 선택해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게 좋다.

발목이 굵다면 끈이 얇은 스트랩 샌들을 선택하되 사선으로 올라오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발목이 강조되지 않아 덜 굵어 보이기 때문이다.

발볼이 넓은 경우 발을 안정감 있게 감싸주는 X-자 형태의 스트랩 샌들을 선택하면 시선을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넓은 발볼을 커버해주는 효과가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나인웨스트 장욱 매니저는 "평소 차분한 색상을 선호하던 사람들도 올해만큼은 화려한 스타일을 많이 찾는다"며 "무조건 유행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생활 패턴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연비 30% 향상… 2010년형 스포티지 나왔다

기아차 '경제 운전 안내시스템' 장착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드는 스포티지가 경제적인 운전법을 안내해주는 시스템과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을 장착했다. '2010년형 스포티지'다.

기아차는 21일 '2010년형 스포티지'의 디젤과 가솔린 전 차종에 경제운전 안내시스템을 적용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경제적 연비로 주행할 수 있는 운전 영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안내를 따라 운전하면 약 10~30% 가량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2010년형 스포티지에는 기존 ECM 룸미러에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유아용 시트를 2열 시트에 고정시킬 수 있고 동승석 에어백, MP3CDP, AUX&USB 단자 등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으며 주력 모델인 TLX급에는 17인치 타이어 및 알루미늄휠이 기본 품목으로 갖춰져 있다.

기아차는 2010년형 스포티지의 신규 품목인 '세이프티팩'과 '2010 스페셜 팩'도 선보였다.

세이프티 팩은 TLX 고급형(A/T)을 기본으로 하되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 차체자세 제어장치(VDC), ECM 룸미러 등을 장착해 안전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2010 스페셜 팩은 기존 스포티지 레저 팩(디젤)과 프랜드 최고급(가솔린) 모델에 동승석 에어백 및 17인치 타이어와 알루미늄휠, 폴딩 타입 리모컨 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등 고객 선호사양을 추가한 모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포티지의 연비는 13.1㎞/ℓ(디젤 2WD A/T 기준)로 국내 소형 SUV중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운전 안내시스템과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각종 편의사양을 더한 것이 2010년형 모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2010년형 스포티지의 가격은 ▲디젤 2륜 구동 모델 1천843만원~2천635만원 ▲디젤4륜 구동 모델 2천283만원~2천363만원 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폭스바겐 구입하면 호텔숙박권 21일 폭스바겐 광주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대형 세단인 '페이톤'을 살펴보고 있다. 폭스바겐 광주전시장 공식딜러인 (주)지오하우스는 7월말까지 페이톤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특1급 호텔인 '라마다플라자 광주'의 숙박권(1일 2인 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와인·청국장 등 10월부터 단위가 표시

용량과 포장이 다양한 와인, 베이컨, 소시지, 초콜릿,청국장 등 각종 식품류, 곽티슈나 세제 등도 단위당 가격이 표시돼 얼마나 싸고 비싼지 비교하기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단위당 제품의 가격표시 기준과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식품류 가운데 소스류와 케첩, 청국장, 초콜릿,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젓갈류, 버터, 시리얼, 와인류, 생수, 주류,건어물 등이 새로 단위당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일용잡화에서는 또 곽티슈와 가루비누, 액체 및 고체 세탁비누, 합성세제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美 연비규제 맞춘다"

현대 기아차 … 2015년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자동차 평균 연비를 크게 강화했지만 현대기아차는 규제가 발효되기 전까지 연비 기준을 맞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현대기아차가 최근 작성한 '연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의 평균연비 목표치가 2007년 갤런당 28.7마일에서 2010년에는 30마일, 2012년 31.5마일에 이어 2015년에는 35마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놓았다.

2015년 갤런당 평균 연비 35마일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2016년 35.5마일(ℓ당 15㎞)'에 1년을 앞두고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연비 강화를 위한 로드맵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연비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개선을 위해 가솔린 엔진의 경우 차량 경량화 작업과 직분기술(GDI)을 이용한 연소효율 향상, 저마찰 오일펌프 등을 통한 마찰력 감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